

해외활동 20년...스타 在獨작가 양혜규

“100전 100패 후 아트바젤서 상받던 감격 잊을 수 없어”

오랜만에 만난 그는 편안해 보였다. 다소 까칠하기로 소문난 그지만 어쩐지 한결 편안한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94년 독일 유학을 시작했으니 외국에서 보낸 세월만 장장 20년이다. 그사이 그의 이름 앞에는 미술관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백남준 이우환 등을 잇는 차세대 거장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 스위스 아트바젤에서 만난 양혜규(43)다.

그는 대형 설치만을 선보여 아트바젤의 꽃으로 불리는 ‘아트 언리미티드’에서 무려 높이가 10m에 달하며 넓이 800㎡의 육중한 블라인드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크기로는 작가의 최대작인 이 작품은 ‘언리미티드’ 입구 앞에 보란 듯이 설치돼 있다. 아트바젤 관람자들이라면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명당인 것이다. “야구로 치면 1번 타자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자리라는 것은 한편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의 깊이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지요.”

담담한 어조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미술관 혹은 비엔날레 작가지만 그는 세계 최대 미술시장인 아트바젤과도 인연이 깊다. 2007년 젊은 작가들의 무대인 ‘아트 스테이트먼트’에, 2009년에는 ‘아트 언리미티드’에 참여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 것이다. “2007년은 아트바젤에서 상을 타면서 처음으로 작품을

팔아봤어요. 그때는 약간 감격적이었죠. 시장에서는 100전 100패하다가 상을 받게 돼 작품이 자연스럽게 소장이 됐거든요.”

이번 바젤에서 선보인 작품은 제목부터 난해하다. ‘서사적 분산을 수용하며-비(非)카타르시스 산재(散在)의 용적에 관하여’가 작품 제목이다. 2012년 독일 뮌헨 소재 현대미술기관인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 1년간 설치됐다가 바젤로 옮겨졌다.

아트바젤에 대형 블라인드 설치 호평

“고통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비결”

거대한 블라인드의 총합이지만 부분적으로 세 개의 구조와 색으로 나뉘어 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진다. 그는 “모든 서사는 보는 사람에 의해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의 속성상 구조가 확연하게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블라인드는 환영(illusion)과도 같아요. 물병처럼 자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 다른 존재를 걸러서 볼 수 있고 중첩시킬 수도 있죠.”

작가는 블라인드 작업을 통해 디아스포라(diaspora·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우리 사회 뭉쳐지지 않는 존



재들도 은유한다.

재일교포 서경식의 저서 ‘프리모 레비로의 여행’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상대하는 무대가 커질수록 제 작업이 단순화되길 원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화하면 신화, 동화같이 되지요. 제 작업은 쉬우면 안 돼요. 애고니(agony·고통)를 유지하는 것이 작가 생활의 비결입니다.”

편안해 보였던 그의 제스처는 단지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일까. 바젤(스위스)/이향휘 기자